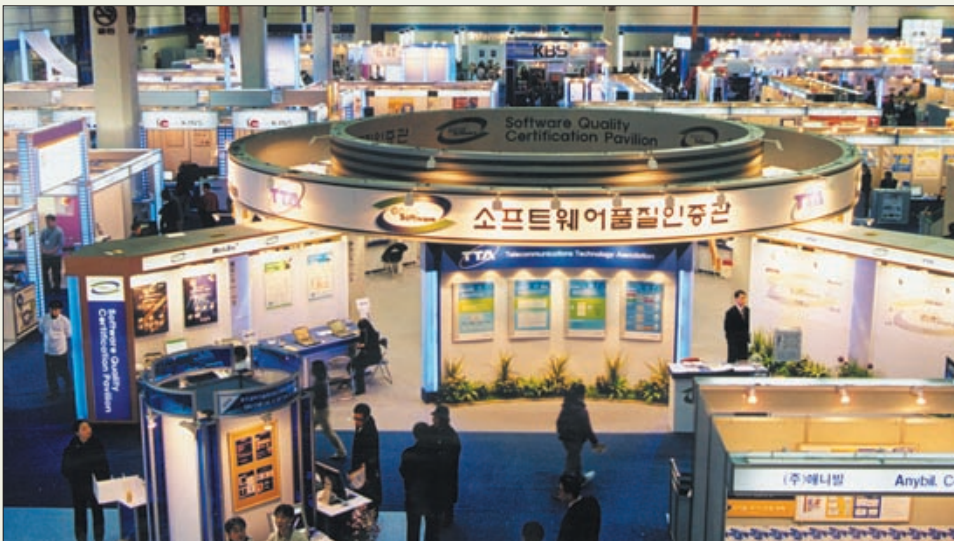


‘소프트엑스포 & 디지털콘텐츠페어 2003’ 개최

# 미래 IT TRAND를 한곳에서 만난다!

‘IT 뉴웨이브’ 주제로 12월 4일부터 나흘간 코엑스에서 열려  
신성장동력 관련 핵심기술 전시회,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

올해로 제7회를 맞는 ‘소프트엑스포 & 디지털콘텐츠페어 2003’이 오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정보통신부 주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주관으로 코엑스 태평양관에서 열린다. 국내 최대의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 전문 전시회로서, 97년 시작된 이후 국내외 IT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알리며 국내 유망업체들을 해외 시장에 소개하는데 크게 기여해온 ‘소프트엑스포 & 디지털콘텐츠페어’는 올해 ‘IT 뉴웨이브’를 주제로 해 임베디드·디지털콘텐츠·디지털영상·모바일 등 9대 신성장동력 관련 전시회 및 다양한 컨퍼런스를 통해 미래 IT산업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리보는 ‘소프트엑스포 & 디지털콘텐츠페어 2003’를 통해 이번 전시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소프트엑스포 & 디지털콘텐츠페어 2002’ 행사 전경 .

이번 ‘소프트엑스포 & 디지털콘텐츠페어 2003’에서 전시  
는 주제관과 특별관, 일반관으로 구성돼 IT산업 각 분야의  
250여개 업체가 총 690부스의 규모로 참가한다.

주제관은 임베디드 S/W관, 공개S/W관, 월드게임페스티벌  
관, 전자정부/SI관, 모바일콘텐츠관, e-러닝관, 디지털영상관  
등 7개의 관으로 구성돼 각 분야별로 다가올 IT 산업의 트랜

드를 제시하게 된다.

특히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기반 산업인 임베디드 S/W관과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공개  
S/W관 등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국내 IT 효자 상품인 게임 관련 전시인 월드게임페스  
티발관에서는 각 업체들의 신개발게임 소개와 더불어 정통부



장관배 게임대회 및 게임 개발대회 등이 개최돼 관람객을 끌어 모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정부/SI 관에서는 삼성SDS, LG CNS, 현대정보기술 등 SI 분야의 스타급 참가기업들의 불꽃 튀는 경쟁이 기대된다. 그밖에도 모바일콘텐츠관, e-러닝관, 디지털영상관 등에서는 우리 생활을 바꾸는 각종 IT산업의 유망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이외에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품질인증획득 우수기업들의 전시관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관,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의 수상작들을 보여주는 신SW상품상관, 일본 오사카 지역의 IT 기업의 공동관인 일본 오사카 공동관 등이 특별관으로 구성된다.

#### 'IT NEW WAVE' 주제 전시 및 컨퍼런스 줄이어

어느 해보다 다양하게 구성된 소프트엑스포 & 디지털콘텐츠페어의 컨퍼런스는 보다 구체적으로 IT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주관사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IT NEW WAVE'를 주제로 주제 컨퍼런스를 개최, 미국 델(Dell)컴퓨터사 윌리엄 아메리오(William J. Amelio) 부사장과 웹메소드(Webmethods)사의 톰 에릭슨(Tom Ericson) 부사장이 미래 Post PC의 모습

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을 맞는 IT 업계의 대응과 향후 10년간의 SW시장의 변화와 기업들의 경쟁력에 대해 각각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또한 주제 컨퍼런스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의 SW산업 유공자에 대한 훈장 및 포상 수여식과 격려사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분야별 각종 컨퍼런스는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비즈니스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는 SKT, KTF, LGT, NTT 도코모 등이 참가해 국내외 무선 인터넷 관련 기술 및 시장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국제 SI 심포지움에서는 국내외 정부기관 정보화 담당관들이 한데 모여 국내 전자정부, 정보화 추진 성공사례 발표와 정보화 시스템 구축계획등을 토론했다. 그 밖에 공개SW세미나, 게임 컨퍼런스, 정보보호 컨퍼런스 등 IT 산업의 각분야에 대한 토론이 기간 중 계속된다.

부대행사로는 동북아 공개 S/W창립행사가 개최돼 한중일 3국간의 공개 S/W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되며, IT Opportunity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해외 바이어를 대거 초청해 국내 우수 기업과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주선했다. 본격적인 해외 진출의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일본 큐슈지역 한국 IT기업의 투자 유치 설명회, 2004 SW수요 예보 설명회 등 IT 산업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각종 행사가 펼쳐진다.



### 국내 공개 SW의 현주소 / 공개 SW관

‘소프트엑스포 & 디지털콘텐츠 2003’에서는 공개 SW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개 SW 관련 주제관을 운영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외 공개 SW관련 기업 18개사가 58개의 부스 규모로 리눅스솔루션, 리눅스용 바이러스, 스타오피스와 e-러닝, 리눅스, MySQL, 전자 상거래 솔루션, 웹 제작툴 등이 전시된다.

RedHat, 한국트렌드마이크로, IBM,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 MySQL 등의 글로벌 공개 SW관련 기업과 리눅스 코리아, 한컴 리눅스, OSS포탈, 애호박 등 국내의 관련 기업 및 커뮤니티들이 참여한다.

한컴 리눅스에서는 리눅스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데스크톱 전용의 리눅스 운영 체제로 웹브라우저, 메신저, 메일 클라이언트, 일정관리, 그래픽 편집기,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등의 사무환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운영 프로그램들이 기본 포함돼 있다.

MySQL AB에서는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채택해 빠른 성능과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소개한다. MySQL은 5년 연속 리눅스 저널이 선정한 최고의 데이터베이스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하루 다운로드가 1만회에 이르는 전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다.

유니맥스 정보 시스템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인-서킷 애플레이터 윈드파워 ICE & IDE를 선보인다.

이밖에 전시행사와 연동해 해외 유명 인사의 강연, 컨퍼런스를 통해 공개 SW산업의 국제 비즈니스 동향과 신기술등을 소개해 국내 기업들에게 사업 전략 수립의 정보와 기회를 제공한다.





## 소프트웨어의 유망주들 한자리에 / 소프트비전관

이번 소프트비전관에는 삼성 SDS, 메비시스, 인터정보, 우린정보, 씨네티아정보통신 등 기업들과 한림대, 숭실대, 연세대, 성균관대, 아주대 등 대학, 텅크웨어, 테크다임, 지앤비 영어전문 교육, 미래로 시스템, 씽크로 정보기술, 엔파인, 컴프로 자드의 등의 기업들이 참가했다.

삼성 SDS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회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mySingle'이라는 기간 시스템을 선보인다. 국내 최초로 개발, 적용된 엔터프라이즈 포탈로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 개발 방법론을 적용해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을 수용하는 표준화를 통해 재사용성을 향상시켰다. MVC Model 적용해 화면과 업무로직 처리를 분리하는 아키텍처 및 컴포넌트화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했고, 이로 인한 컴포넌트 재사용으로 개발 생산성 향상 및 단계별 구축시간 단축을 달성했다. 또한 출장지나 가정에서도 인터넷만 연결하면 mySingle에 접속해서 정보유출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업무추진이 가능하다.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4종류의 외국어로 만들어 완벽한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며 B2E, B2B, B2C 논리적 통합과 협업지원 및 콘텐츠 관리 기능들을 지원하는 차세대 포털 기능을 강화했다.

메비시스는 3차원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 'VoxelPlus2'를 선보인다.

VoxelPlus는 CT(Computerized Tomography), MRI(Magnetic Resonance Image) 등의 기기로부터 얻은 2차원 단면 영상들을 3차원으로 재구성해 보여주는 PC용 소프트웨어이다. VoxelPlus2는 시장에 존재하는 기존의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기획 단계에서부터 각 병원의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와의 접합성을 고려해 위한 3차원 소프트웨어의 개념을 도입했다. 또 영상 전송과 영상 DB 관리 기능을 강화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영상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인터정보는 CVD(Color Vision Deficiency) 기술을 개발해 이번 전시에 참가한다. 인터넷을 비롯해 디지털 이미지, 비디오 압축 기술의 발전으로 휴대폰, PDA, 핸드 PC 등 이동통신 장치를 이용해 고화질 색상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접하고 있다. 그러나 색각 이상자들은 색상을 통한 정보 전달이 증가하고 다양해지면서 불편함이 증가하게 된다.

CVD란 색각 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때 사용자의 시각적인 특성과 주위 환경에 맞추어 멀티미

디어 콘텐츠를 적응 변환(adaptation)시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시각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 색을 강조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용자의 색각 특성에 맞게 적응 변환하는 매트릭스(matrix) 정보를 생성해 적응변환을 시켜준다. 이 기술은 TV, 모니터, 핸드폰, PDA 등 개인 멀티미디어 단말기 등에 응용해 색각자들도 정상인과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우린정보의 'MyIBee2I'은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와 지식정보를 수집, 선별해 저장 및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개인 지식 정보 수집 에이전트이다. 이 제품은 강력한 문서수집기능과 개인지식경영엔진에 기반해 인터넷에 산재돼 있는 다양한 지식정보를 선별, 자동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지식정보를 체계적인 분류체계에 따라 저장, 관리함으로써 지식축적 및 조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또 웹콘텐츠 수집기능, 웹페이지 업데이트 알림기능, 개인 지식 맵 구성 및 조회기능, 소장된 개인 지식 검색 기능, 다양한 형식의 저장문서에 대한 내용 기반 검색 기능, 개인 지식 업데이트 알림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씨네티아 정보통신의 'ThinMaster'는 윈도우와 리눅스를 통합해 씬클라이언트 컴퓨팅을 구현해 주는 솔루션으로 개인 PC와 독립된 서버들로 구성돼 있는 기존의 업무환경을 하나의 통합된 환경으로 구성하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동일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다양한 플랫폼(Windows OS 및 Linux OS)에 대해 인증체계, 보안/관리 정책,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통합해 완벽한 통합형 관리 운용체계를 완벽히 지원한다. 공개 SW 활용에 대한 정부 시책을 적극 활용해 공공기관 및 관공서에 리눅스 사무환경 구축을 지원하며, 리눅스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텅크웨어의 '아이나비'는 디지털맵을 PDA용 이동식 단말기에서 디스플레이해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들에게 편리한 위치 정보, 경로정보,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항법 시스템이다.

이 제품은 메모리카드에 전국의 방대한 지도를 내장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PDA용 플래쉬 메모리 방식의 차량용 네비게이션 시스템이다. 지도보기, 지도검색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로 탐색, 기상상황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차량에 대한 보안 단말기, 위치기반 서비스, 콜택시 서비스 등 기존의 지도 검색 시스템의 단순한 기능에서 다양화된 기능을 지원한다.

또 MBC의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인 'DARC(Data Radio Channel)' 기능을 지원해 실시간 교통정보표시, 기상정보 지



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 PDA 및 Auto-PC에 탑재해 어느 차량에든 장착 및 이동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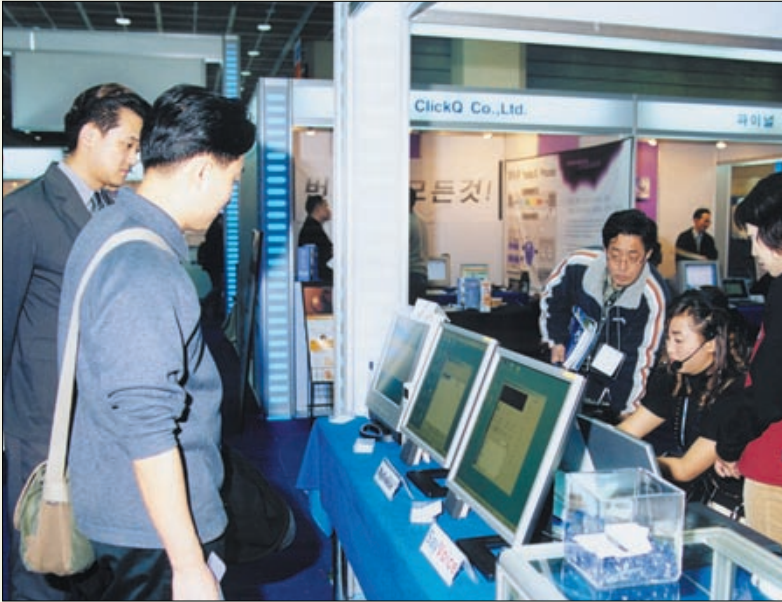
통신을 통해 부가적인 정보 및 변경된 지도데이터와 정보데이터, 프로그램 패치 화면 등을 받을 수 있다는 효율성 또한 아이나비의 장점이다.

테크다임의 '테크다임 오피스 2.0'은 테크다임워드, 테크다임캘크, 테크다임쇼(프리젠테이션)으로 구성됐으며, 100% 자체기술로 개발된 국내 최초의 통합 오피스 프로그램이다. 국내제품에서는 볼 수 없는 이미지회전과 필터링의 이미지프로세싱, 투명창, 수식입력줄 크기조절 등의 독자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MS오피스와의 안정적 호환을 바탕으로 일반 문서편집은 물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업무용 등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MS오피스 가격의 1/4에도 못 미치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지앤비 영어전문교육의 'English Life'는 수동적 언어학습방법인 읽기와 듣기 위주 교육의 단점을 보완해 음성인식 기술과 멀티미디어 동영상 캡션 기술을 접목한 쌍방향 음성인식 방법을 이용한 차세대 영어학습프로그램이다. 국내 처음으로 생각단위와 연결질문이라는 영어학습법으로 특허획득 및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게 됐으며, 이 학습법을 기반으로 개발한 쌍방향 멀티미디어 학습 시스템이 English Life이다. 이 시스템은 영어뿐만 아니라 어순이 다른 기타 다른 외국어 학습에도 적용 가능하며 외국에 학습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중국 및 일본에 수출 예정이다.

이밖에도 미래로 시스템의 반도체 결함분석 시스템 'Data Manager', 씽크 정보기술의 금융권의 통신, 업무 통합, 자동화 기기관리 등에 적합한 미들웨어시스템 'thinkSWITH', 엔파인의 '매쓰매직', 컴 프로자드의 '체틱스' 등이 전시된다.



### 한국 게임산업의 위상을 높인다! / 월드게임페스티벌

월드게임페스티벌관에서는 국내 우수 게임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 분야 중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게임 기업의 전시와 함께 정통부 장관배 게임대회 및 게임 제작 대회도 진행된다.

조이온, 디지털 실�크로드 등의 유망 게임업체들과 KT 등 게임 업계 최고 기업들의 온라인 게임, PC게임, 콘솔 게임 등 게임 각 분야의 제품을 선보인다.

조이온은 이번 전시에서 '임진록 온라인 : 거상'과 게임포털사이트 '조이온닷컴'을 시연한다. 그동안 역사물 위주의 게임을 개발해 교육성과 흥미를 함께 전달해온 조이온의 경제온라인 게임 '거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독특하고 차별화된 게임 포털 사이트인 조이온닷컴을 오프라인에서 느낄 수 있다. 거상은 롤플레이팅 형식의 게임으로 폭력성을 배제한 스토리와 게이머가 거상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이다. 1509년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조선, 중국, 일본의 당시 상황이 게임 속에 잘 녹아있어 역사적 사실들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 투자 시스템 등 경제적 개념을 가미해 재미를 더하고 있다.

안다미로의 네트워크 기반의 멀티 플레이어 온라인 머그게임인 '뽕프잇업', 디지털실�크로드의 '플트리거' 등도 만날 수 있다.

또 이번 전시회에는 게임 소프트웨어 외에도 게임을 즐기기 위한 주변 도구 및 장비에 대한 전시와 ETRI의 모션캡처 장비도 소개된다. ETRI는 이번 전시에서 모션 영상 제작 시스템을 비롯한 게임 제작을 지원하는 첨단 장비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12월 7일 행사 마지막 날에는 게임 기술의 저변확대와 우수게임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정통부 장관배 게임대회의 결승과 제작대회의 시상식이 열린다.

### e-러닝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e-러닝관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성장할 e-러닝 산업의 유망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스피디한 학습 시스템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e-러닝 관련 소프트웨어를 선보인다.



e-러닝관은 20여개 업체가 50부스 규모로 진행하며, 한화 S&C, 하나로드림, SDS멀티캠퍼스, 이런넷 등의 e-러닝 관련 업체들이 참여한다

한화 S&C는 HDES(한화디지털콘텐츠e커머스솔루션)라는 교육시스템을 선보인다. e-러닝 산업에서 각종 교육정보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와 사용자의 정보보호는 필수적이다. 한화 S&C의 HDES는 DRM, DOI기술을 근간으로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강력한 라이선스 정책 및 관리를 통해 디지털콘텐츠의 불법적인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며, 콘텐츠 제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다.

또한 PKI 기반 기술로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를 보장하며, MS-DRM SDKL에 호환되는 디지털콘텐츠 유통, 보호 솔루션이다.

하나로드림의 정보통신 사이버 대학은 정보통신부의 인력양성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적인 I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999년 16개 학교의 컨소시엄으로 출발해, 현재 44개 참여 대학간의 무료 학점 교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이다. 정보통신 대학은 대학생들을 비롯해 일반인들에게도 대학 수준의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IT 교육 컨소시엄이다.

초기에는 각 대학으로 분산돼 있던 강의 시스템을 하나로드림이 통합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후 대학 61개, 대학원 15개, 비학위 13개 등 총 90여개의 과목을 운영하며, 이들 모두 정보통신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개발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2004년 8월까지 국제 표준에 맞는 학사관리 시스템을 구

축하고 콘텐츠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정보통신 대학의 운영 시스템의 시연을 통한 정보통신대학의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비트컴퓨터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비트 캠퍼스를 시연 예정이다. 비트캠퍼스는 온라인 강의와 상담, 위탁교육 등을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콘텐츠이다.

현재 비트캠퍼스에서는 프로그래밍과 영어, 경영 및 각종 자격증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온라인 시연, 강의와 더불어 각종 상담도 함께 진행돼 e-러닝의 실질적인 구현을 체험할 수 있다.

이밖에도 맞춤형 전자교재, 유비쿼터스 e-러닝 솔루션, 전자책 등 우리 생활을 바꿀 e-러닝 관련 소프트웨어들을 선보인다.

또한 e-러닝 관련 세미나를 통해 정부정책, 학계, 연구사례, 관련기업의 실질적인 성공사례 등을 발표해 IT 기술과 e-러닝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임베디드 강국으로 가는 도약의 장 / 임베디드관

이번 소프트웨어엑스포 & 디지털콘텐츠페어 2003에서는 국내 임베디드 SW의 현재 위치와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전시가 진행된다.

임베디드관에서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임베디드 SW 비전'을 주제로 국산 리눅스를 활용한 SW 및 SW탑재 단말기 등이 선보여 대부분 외국산 SW가 통용되는 국내 시장에서의 임베





디드 SW분야의 현주소와 방향을 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비롯해 정보통신 관련 대학의 전시참여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던 임베디드 공모전 수상작 3점이 전시되며, 마이크로 비전, 스마트 윈드테크놀러지, 몬타비스타소프트웨어코리아 등 임베디드 관련 유망 업체들도 만날 수 있다.

ETRI에서는 'Embedded Software Everywhere' 라는 컨셉 아래 'Embedded Software in the Home', 'Embedded Software Outside', 'Qplus 및 개발지원 도구 Esto 시연' 의 세 가지 테마로 전시를 구성한다.

'Embedded Software in the Home'에서는 홈엔터테인먼트 DVD를 감상, 디지털 방송 시청, TV를 이용한 영상전화, 공동브라우징, 원격 진료 등 가정 내에서 응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선보인다.

'Embedded Software Outside'에서는 이동자의 이동동선을 따라 곳곳에서 이용되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시나리오로 구성해 시연한다.

외출시, 집안의 홈서버를 이용해 특정 지역의 교통 상황을 카메라로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련의 상황을 PDA에 저장해 카서버로 이동하면 카서버의 액정에 교통상황이 표시된다.

중간 휴식지에서 인터넷 자판기를 이용해 음료 구매할 경우 인터넷 자판기의 액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광고가 방송되거나 사용자의 PDA에 기록된 설정에 따라 교통상황이 중계되며, 목표 지역의 기상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지능형 기상관측 자동 제어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경보를 제공하는 등 가상의 설정을 통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밖에 관련 제품으로는 스마트폰용 솔루션 임베디드 서버, 임베디드 개발 도구, 인터넷 자판기 네비게이션, Qplus기반의 임베디드 시스템 등이 전시를 통해 소개된다.

#### 전자정부 구축 경험을 세계에 알린다! / 전자정부·SI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을 소프트웨어엑스포 & 디지털콘텐츠페어2003의 주제관 중 하나인 전자정부/SI에서 만날 수 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지난 20년간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2002년 Brown university가 전세계 19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 전자정부 우수국가 현황'에서는 세계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행사의 경우 방글라데시 해운부 장관 Akbar Hossain,





브라질 기획 예산 관리부 장관 Rogerio Santanna Dos Santos와 예멘 내무부 국장 Nafa A Altayib 등 전자정부 프로젝트 계획이 있는 동남아 및 유럽의 정보화 담당관들이 대거 참석한다.

방글라데시는 320만달러의 항만 물류 시스템 프로젝트 계획, 브라질은 약 500만달러 규모의 조달 시스템 프로젝트의 계획이 있으며, 해당 부서의 최고 담당관의 참석으로 프로젝트 수주가 더욱 높게 예상된다. 예멘의 경우 1,000만달러의 행정 관리 시스템개발 계획이 있고 올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G2G 국가 협력사업의 MOU를 체결해 국내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들 담당관들을 전시관과 국제 SI 심포지움 등 관련 행사에 모두 참석할 계획이다.

전시관에서는 삼성 SDS, SK C&C, 현대정보기술, LG-

CNS, 포스테이타 등 국내 SI 관련 선두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각 사의 제품을 선보인다.

16대 대통령 선거시 우수성을 인증받은 전자개표시스템을 선보인 SK C&C는 이번 전시에서 통합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소개한다. 통합 전자 투/개표 시스템은 인터넷과 키오스크 투표시스템, 전자개표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인터넷 투표로 고도의 인증기술인 PKI를 통해 최고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후 투표관리 서버를 통해 신원 확인증을 발급하고 은닉 서명을 통해 투표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등 그동안 전자 투표에서 가장 큰 고려 사항이었던 선거자에 대한 정확한 인증부분의 문제를 해결했다. 키오스크 투표는 인터넷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위한 투표방식으로 지문 대조 방식으로 선거인 인증을 한다.

삼성 SDS에서는 행정자치부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을 선보인다.

전자행정, 전자세정, 전자조달 등 세 분야로 구성돼 있는 이 시스템은 전자인증, 정보보안, 전자 지불, 전자문서유통 기술을 통합해 민원 서비스 포털 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한 국세, 관세, 지방세 등 일반공과 부문의 세정 서비스 등을 제공해 행정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밖에도 LG-CNS의 재정정보 시스템과 등기부 전산 시스템 관련 솔루션, 해외 프로젝트 사례와 포스테이타의 B2B 솔루션 ITS(교통흐름시뮬레이션) 등 전자정부 관련 최신 트렌드를 만날 수 있다.

### 해외 진출의 노하우, 이곳에서 배운다! / IT Opportunity

IT Opportunity에서는 중국(IDG VC)투자유치상담회, IT Opportunity 전략세미나,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가 진행된다.

개막 하루 전(12월 3일) 진행될 중국(IDG VC)투자유치 상담회는 해외 진출의 기회 및 가능성이 입증된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IT 업계에 효과적인 해외 채널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 IDG VC의 사장 및 임직원 10인이 참석하는 이 행사에서는 국내 브로스 밴드 부가서비스, 온라인게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분야에서의 중국과의 IR이 진행될 예정이다.

12월 4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될 IT Opportunity 전략세미나에서는 국내 기업들에게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노하우를 제시하고 나모 인터랙티브의 미국내 판매 활동 사례,



실트로닉스의 일본 대기업과의 협력 사례와 동남아 마켓 채널 발굴 사례, 디지털콘텐츠 유통채널 발굴사례 등 실제 사례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업계의 해외 진출 방법 및 방향을 제안한다.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디지털콘텐츠 포함, 총 30개사의 마켓 채널을 초청해 상담회를 진행한다. 12월 5일 진행되는 이번 상담회에서는 해외 바이어들과의 접촉 기회를 제공한다. 상담회 진행 후 마켓채널 및 국내 기업의 상담보고서를 취합한 상담회 실적을 이용해 성공케이스 발굴 및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기간 중 해외 바이어들의 행사 관람 및 국내 기업들과의 개별 상담도 진행된다.

### 공개 SW 대가들이 한자리에 / 공개 SW 컨퍼런스

공개 SW 컨퍼런스는 공개 SW 관련 해외 유명인사를 초청해 국제 비즈니스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사업 전략 수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12월 4일 'Free Software의 사회와 경제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FSF(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의 대표인 Georg C.F. Greve의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Georg C.F. Greve는 FSF의 대표이자 개시자이며, 경제적 분야에서 공개 SW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이슈들에 관여해왔다. 이번 연설에서는 정보 시대에 직면한 프리소프트웨어에 대

한 배경설명과 과학, 경제, 국내 경제, 정치학 등 사회 전반의 범위를 제공하는 프리소프트웨어의 전망을 이야기한다.

레드햇 최고의 기술 전문가인 Michael Tiemann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공개 소프트웨어의 발전, 건축과 무역'이라는 주제로 연설한다.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로 인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운영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공개 SW 프로젝트의 형태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한, 중, 일 정부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

Michael Tiemann의 발표 중 질문과 답변이 있을 예정이며, 12월 4일, 5일 양일간 Michael Tiemann과의 1:1 토론회가 가능하다.

MySQL AB의 공동 창설자인 David Axmark는 영리적인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MySQL의 연혁과 새로운 발전, 과거와 미래 등의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한다.

속도와 안정성, 실용성, 활용성의 장점을 가진 MySQL은 상업적인 공개소스로 시작돼 다른 FOSS(무료 공개소스)프로젝트와는 차별화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MySQL의 특징 및 장점과 함께 일반적인 비즈니스 방식을 무료 소프트웨어에 혼합시킨 방식에 대한 대화가 가능하다. MySQL은 하루 3만 5,000회 이상의 서버 다운로드와 대략 400만건의 설치가 이루어지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QL 데이터 베이스 중의 하나이다. 🇧🇪

